

제발이지 같은 말이라도

개신교(改新敎) 교회의 목사님들은 술과 담배를 일절 입에 대지 않습니다. 물론 기독교 신도들도 외견상 이는 매한가지라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술과 담배를 멀리함으로써 자신의 몸을 성결케 하여 구별되고도 절제된 경건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앞에 드러내기 위함에 있다고 합니다(앞선 프롤로그 참조).

그렇다면 술과 담배는 적어도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는 부정(不淨)한 것의 본질로서 취급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연유에서인지는 몰라도 복잡다단한 사회생활을 통해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않는 사람을 마주 대하게 되면 누구나가 무심코 이 사람은 틀림없이 크리스천일거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간에 널리 회자되고 있는 에피소드라 볼 수 있지만 필자가 이 이야기를 접한 때는 대학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목사님 주일설교 중에 접했던 한 조각 우스갯소리입니다. 목사님이 시골교회에서 전도사로 시무하시던 때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때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신앙은 참으로 돈독했다고 합니다. 마을사람 누구에게나 신앙적으로 모범을 보였

고 인근마을에서도 이로 인하여 칭송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 한 가지 끊을 수 없는 기호(嗜好)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껍연(喫煙)이었습니다. 곧 골초 중에 골초였던 것이지요.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교회의 재래식 화장실에 하도 구더기가 많이 들끓자 목사 사모님은 생각다 못해 탈곡에 쓰던 발동기의 기름을 빼내다가 화장실에 들어 부었다고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오로지 구더기를 없애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한 집사님은 남들의 눈을 피해 몰래 이곳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그것도 담배하나 물고 용변을 보다가 무심코 기름에 뒤범벅이 된 변통에 떨어뜨린 담뱃불이 화근이 되어 화장실은 둘째 치고 자신의 엉덩이에 큰 화상을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온 동네에 난리 아닌 난리가 났음은 자명한 일이었겠지요.

한 집사님은 지금까지 30년 동안 즐기치게 즐겨왔던 껍연의 즐거움을 끊고 바야흐로 해방[금연(禁煙)]의 기쁨을 맛보기에 이릅니다. 마치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의 해방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집사님이 금연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간증(干證)이 실로 가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곧 그 집사님은 금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자신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그것도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화장실까지 찾아오셔서 오순절(五旬節, Pentecost, Pentecostes) 성령의 불을 놓아 지금까지 잘못된 자신의 죄를 일시에 도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온 좋게 살아남은 구더기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그 구더기는 한 집사님의 산 증인이 되는 셈입니다.

이 사연을 들먹이시면서 목사님께서는 당시 필자를 포함하여 젊은

우리에게 직연의 패악함을 추상같이 이르셨습니다. 잘못하다간 엉덩이는 커녕 온 몸을 불사를 수도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말입니다.

화제를 바꾸어, 레위기의 기록으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레위기에 서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음식을 성별해 두고 있습니다(레 11, 신 14). 곧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구분해 두고 있습니다. 물론 제사규례로서 말입니다. 이를 일컬어 ‘코셰르(*Kashrut, Kashér, Kosher, כּוֹשֵׁר*) 율법’이라고 합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음식, 곧 먹을 수 있는 것(예를 들면, 식물, 소, 양, 염소, 사슴, 닭 등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제외한 모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예를 들면, 돼지고기, 조개, 맹금류, 게, 박쥐, 메기를 포함하여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어류 등)에 대한 구분은 지금의 우리가 보기에 심히 낯설고 또한 선뜻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나아가 왜 이러한 음식들이 부정한 것으로 또는 혐오스러운 것으로 취급되었는지 이유 또한 명쾌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종교적 사정과 환경을 이해한다면, 결코 이 기록이 그렇게 부자연스러운 기록이라고는 설βολ리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돼지고기를 부정한 것으로 취급하여 먹지 말라고 했던 것은, 당시 돼지는 이방신교(異邦神敎)가 창궐했던 가나안(Canaan)에서 우상(偶像)에 대한 희생제물로 사용되고 있었고, 바벨론[Babylonia, 현재의 ‘이라크’(Iraq)]이나 구브로[지금의 사이프러스(Cyprus)] 및 시리아(Syria, 성경에서는 ‘수리아’) 등에서는 신성한 동물로서 존중시 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면, 그다지 수긍 못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한편 이와 병행해서 자연계의 사물에 대한 당시의 종교관도 코셰르

율법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컨대 뱀을 부정한 것의 원인으로 삼은 것은 뱀이 잡신(雜神)의 힘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당시의 사회적 인식에 기초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코세르의 판단기준은 무엇보다도 그 배경이 선민(選民, 곧 이스라엘)과 이교(異敎)와의 뒤섞임을 방지하기 위한 것에 본연의 뜻을 두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 코세르 율법은 현대의 의학적 견지에서도 일견 타당성을 엿보이고 있습니다. 곧 그것을 자주 취하는 경우 사람 몸의 건강상 치명적인 해를 끼치거나 끼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임을 상기할 때, 한편으로 레위기에서 식물(食物)의 취사선택은 껍이나 재미를 더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두를 규례로 두신 하나님께서는 이유를 각자 이스라엘의 몸을 구별하여 깨끗하고 성결하게 하여 거룩히 보존하여야 함에 두시고, 그 낱알을 이스라엘의 처분에 맡겨두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날 술과 담배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코세르 율법에서 ‘피’(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볼까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화제를 조금 비약해 봅니다. 히브리어로 성(聖)은 코데쉬(Kodesh, קֹדֶשׁ)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을 뜻합니다. 성(聖)과는 반대로 속(俗)은 초울(Chol, חֹל)이라고 하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 이외에 ‘(평상시에) 보통으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보통 거룩[성(聖)]을 순수한 도덕적 의미에서 이를 새겨두고 있지만, 레위기의 기록에서는 그에 앞서 예배상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곧 성과 속에 대한 율법의 기본 명제는 다음의 기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레 19:02)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다”는 의미는 오직 하나님만이 천상 천하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 앞에만 예배를 드려야 하고, 어떠한 형상이든지 모습이든지 다른 신에게는 예배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취지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또한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어떠한 신에게도 예배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록에 비추어 ‘거룩’이라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만 예배드려야 한다는 명령을 담고 있다는 시각에서 그 뜻을 바로 새겨두어야 합니다. 결국 ‘거룩하다’는 것은 모든 율법의 뼈대를 이루게 되고, 이에 따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거룩’은 예배상의 문제에만 국한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예배한다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만을 따라야 할 것임을 표창하고 있기에, 결국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상호 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거룩’이라는 것에 사람 상호 간의 도덕적 요소가 가미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은 하나님과 사람을 범위(대상)에 두고 있는 셈이 됩니다.

한편 당시 시나이반도 유랑가운데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물을 제외하고 누구도 도살(屠殺)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곧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외에 도살을 범하는 자는 살인죄를 범하는 자와 매한가지로 취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모든 제사의 희생제물은 그것도 장막 내에서만 도살해야 했습니다. 또한 모든 희생은 하나님께

만 드러야 함은 물론이고, 이때 희생제물의 피는 어떠한 경우라도 입에 대거나 취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피를 취하거나 먹은 자는 극형으로 처벌하였습니다. 이는 신약에 이르러서도 처지는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행 15:20)

여기서 피를 먹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모든 피에는 생명이 깃들어 있는 것으로 취급하였기 때문입니다. 곧 피를 하나님과의 생명을 연결하는 끈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는 사람이나 동물의 것을 불문하고 이를 다치게 하거나 상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피는 거룩한 것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용도를 제한해 두었습니다. 이는 장막 안의 가족에게는 물론이고, 수렵에 의해 잡은 조수(鳥獸)의 피 또한 다름이 없었고 또한 이에 덧붙여 스스로 죽은 짐승과 찢겨 죽은 짐승의 고기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 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창 09:04)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신 12:23)

지금의 우리가 일상에서 취하고 있는 음식 중에서 이 기록(피)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 아마도 ‘선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먹을거리로서 ‘순대’나 ‘선짓국’ 또는 ‘파로국밥’ 등이 그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친구약 공히 이를 멀리 하고 있음에 따라 말씀대로라면 결코 입에 대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구약의 그때였으면 정말이지 죽었을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못해 먹을 수밖에 없게 된 때나, 참지 못해 먹게 된 경우에는 그때를 떠올리며 먹을 일입니다.

한편 신약에 이르러 예수님께서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음식은 모두 깨끗하다며 이를 폐하시기에 이릅니다. 곧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음식으로 취하게 하셨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는 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막 07:18-19)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바로 보아야 할 것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음식입니다. 곧 ‘생명의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靈)이 강건하려면 육(肉) 또한 건강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육이 건강하려면 영 또한 강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을 허투루 대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이르신 바와 같이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하여야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허투루 것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추상같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새겨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자 안타깝게 애쓰는 삶, 그 속에 술 취함이 들어올 수 없고, 담배가 스밀 수 없으며, 피가 버무려 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욕과 탐욕이 깃들 수 없는 것이라 보아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레 11:44)

다시 앞선 화제로 돌아가, 피는 물론이고 술과 담배와 관련하여 필자가 이 지면에서 논하고자 하는 핵심은 술과 담배를 배타시하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의 자세를 탓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언급생심 술과 담배에 크리스천을 결부하고 있는 비뚤어진 세간의 시선을 질타(叱咤)하고자 함은 더더욱 아닙니다. 모름지기 그것은 세간의 시선에 용해(溶解)되어 있는 크리스천의 저급한 행실을 적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좋은데, 기독교인들은 정말이지 싫어요”

“우리가 ‘기독교’를 ‘개독교’라 부르는 이유는 모두 기독교인들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이라면 아마도 처음 들어본 이야기는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자문해 보기에, 지금처럼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않으면 크리스천 일 것이라는 세간의 보편적인 생각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이야기일까요?

이에 반하여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고 위로하는 일에 안타깝게 애쓰는 사람들이야말로 분명 크리스천일 것이라는 생각은 어디에 파묻혀져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세간의 생각은 착한 행실로 남들의 귀감이 되는 사람들을 크리스천에 결부하고 있는 것보다도 오히려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않는 사람들을 크리스천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일 것이라 봅니다. 무엇 때문에 이처럼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세간의 시선은 본말(本末)이 전도된 채 냉담하고 싸늘하게 왜곡되어 있는 것일까요?

착한 행실과 인격으로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돌보고 배려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아마도 저 사람은 필시 크리스천일 것이라는 생각이 세간의 보편적인 시선이 되어야함에도, 어떠한 이유에서 세간은 술과 담배를 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크리스천이라는 호칭을 덮어씌워 두고 있는가 말입니다. 떠올리기 싫은 끔찍한 가정일지 모르겠으나, 혹시 술과 담배가 소위 세간에서 비아냥거리고 있는 말 그대로 “기독교인이 싫다”는 때로는 ‘개독교인’라는 칭호와 어떠한 연관성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각설하고 필자는 이 지면에서 술과 담배를 겉과 속이 다른 기독교인들의 표리부동(表裏不同)한 이중성을 표창(表彰)하고 있는 매개(媒介)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표리부동하다”는 의미는 말쑥의 법을 따라 ‘하라’는 것은 지독히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기를 쓰고 찾아서 행하는 크리스천의 이율배반성(二律背反性)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세간의 시선과 다름없이 술과 담배에 은유적(隱喻的)으로 빗대어진 크리스천은 모두가 부정하기 그지없는 방탕(放蕩)의 주체가

되는 셈이 됩니다. 여기서 ‘방탕’이라고 함은 사전에서와 같이 ‘행실이 좋지 못하고 마음이 들떠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크리스천을 부정하기 그지없는 방탕의 주체로 싸잡아 몰아가는 것은 지나치게 과장되고 비약된 망발(妄發)이 아닌가는 생각도 가져볼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도 무시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향하여 온정의 손길을 베푸는 사람을 볼 때마다 뉘나 다름없이 “아마도 저 사람은 크리스천일거야”라고 쉽게 떠올릴 수 있게 하여야 함이 옳은 일이 아닐까요? 그렇지만 지금의 형국은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않는 행위 자체를 크리스천에 결부해 두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 통념이 되고 있는 형편인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참으로 기가 막힌 현실이 아닐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필자만의 고루(固陋)하기 그지없는 킁킁한 생각일까요?

순대나 선짓국은 뒷전에 두고서라도 그간에 술과 담배를 즐겨하고 있는 크리스천을 대할 때마다 어떠한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니 그보다는 크리스천으로서 술과 담배를 즐기고 있는 중에 또 다른 크리스천에게 현장을 들키고야 말았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계속 담배를 물고 계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술잔을 들이키고 계셨습니까?

이 같은 질문에 또 다시 결코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필자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술과 담배를 즐겨하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을 탓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재차 이야기하기에 크리스천의 정체로서 필자를 포함하여 크리스천 된 우리의 행실을 우리 앞에 드러내고자

기를 쓰고 있는 것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던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발이지 같은 말이라도’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세상을 감싸라고 이야기 해 주십시오.

‘제발이지 같은 말이라도’ 패악하기 그지없는 악한 세상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가 그 패악을 이끈 장본인으로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해 주십시오.

‘제발이지 같은 말이라도’ 세상과 연합하지 말 것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세상 앞에 보다 겸손해질 것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발이지 같은 말이라도’ 세상에 획을 그으려 하지 말고, 지금 쌓여 있는 벽을 허물고자 애써 주십시오.

‘제발이지 같은 말이라도’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한 지탄의 화살에 활촉하나를 더해 얹게 하지 말고, 세상을 대신하여 쏟아지는 화살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결연한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그 최선봉에 목사님이 계시고,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고, 집사님이 계시다면, 언감생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뒷짐 지신 채, 그저 내려다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계실 줄 압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구하고 이후로 무엇을 구하시렵니까? 헛되고 헛된 이 세상에서의 영달을 구하고 이후로 자신의 안위를 구하시렵니까? 세상이 우리를 수 있는 높은 지위와 재산과 무사안일의 형통을 구하고 이후로 단위에 당당히 올라 있는 자랑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구하시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고래고래 욕하고 조소하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하등의 미동도 없이 그도 뻔뻔스럽게 악한 세상을 불쌍히 보고 그러기에 용서해 달라고 구하고 이후로 세상을 위해 혀를 찰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구하시겠습니까?

해마다 연초에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써내라고 요구하셨지요? 무엇 때문에 써내라고 하셨습니까? 그렇고 저렇고 간에 그렇다면 기도의 제목에서 남을 위해 세상을 위해 죽겠다는 기도의 제목은 몇 장이나 보셨습니까? 혹시나 모든 것이 남이 아닌 자신을 위해 이 세상에서 그저 바라고 그저 원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자칭(自稱)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代言)하는 주의 종'이라는 무시무시한 호칭을 기억할 때, 정녕 하나님께서 그렇게 써내라며 이르셨던가요? 정녕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땅위에서의 기복을 위해 기도하라고 이르셨던가 말입니다.

알게 모르게 술과 담배는 그렇게도 멀리하라며 죄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보다 더한 순대나 선짓국에는 아무 말 없이 침묵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세상에 뜻 모를 획을 그으려는 심사는 아니었습니까? 그간에 예수님을 닮아 세상을 위해 가장 비참하게 죽으라는 말은 무엇 때문에 그토록 아껴두셨는가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주셨다는 이유에서였습니까? 몰라서 여쭈어 보기에 술과 담배를 즐겨하는 크리스천의 죄가 더 무거울까요? 아니면 세상의 따가운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결같이 자신을 감싸 안고, 아닌 게 아니라 그저 구하고만 있는 크리스천의 기복신앙(祈福信仰)의 죄가 더 무거울까요?

그렇고 저렇고 간에 오늘 목사님의 기도제목은 무엇입니까? 그러기에 오늘 따라 미치도록 술 생각이 간절할 따름입니다.

『목사님, 술 한 잔 하실래요?』